

참을 수 없는 ‘미래도서관 담론’의 가벼움

김정근*.이용재**

— 목 차 —	
I.	정보 그리고 정보화 담론의 흥수
II.	한국 도서관현장으로 밀려드는 ‘미래도서관 담론’
III.	‘미래도서관 담론’과 버텨읽기
1.	정보—지식—이해—지혜
2.	도서관의 적들
IV.	세계일류—기본에서 시작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지만 지식에 갈증을 느낀다

John Naisbitt

I. 정보 그리고 정보화 담론의 흥수

흔히들 현대를 정보화시대라고 말한다. 이 말이 세계사와 지구촌에 있어서 보편성을 띠는 말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90년대의 한국 사회에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보

(information)’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일단 눈을 뜨고 귀를 열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말이다. 돌도끼를 들고 뛰어다니던 원시인에게 있어서 정보란 일기(日氣)의 변화, 동료의 괴성 등 육감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었겠지만, 현대인은 가만히 앉아서 인공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성이 보여주는 기상사진을 곁들인 일기예보, 간밤에 일어난 사건사고 소식, 각종 생활정보 등을 눈과 귀를 통해 접하게 된다. 현대과학문명의 발전으로 현대인의 눈과 귀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점차 극복하고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에 가속을 붙이고 있는 것은 바로 컴퓨터이다. 2진법에 의해 움직이는 강통에 불과했던 컴퓨터가 이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있는 미국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 미디어 테크놀로지 교수인 니콜라스 네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는 “컴퓨팅은 이제 더 이상 컴퓨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이다”¹⁾라고 말한다. 디지털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말을 좀더 들어보자.

책, 잡지, 신문, 비디오카세트처럼 사람이 직접 손으로 취급하던 정보가 플라스틱 조각에 녹음된 전자자료—값싸고 직접적인 전달 체제로 변하여 광속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해서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무료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도서관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우리의 선조는 2,000만명의 사람이 그 내용을 무료로 꺼내볼 수 있는 디지털도서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²⁾

그의 말처럼 우리가 과연 디지털세상으로 진입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다른 담론의 장을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internet)이라고 하는, 세계를 하나로 묶는 컴퓨터망에 대한 열광(어쩌면 광기)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흔히들 인터넷은 '무료'라고 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구비하여야 하며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전력, 컴퓨터수리 등 상존하는 기타 비용도 생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질(質)이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특히 언론은 현재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시대에 뒤지면 큰 일이라도 나는 듯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인터넷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신드롬'이 만들어내는 우리 사회의 조급증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 사회는 불과 지난 몇 년 사이에도 '컴퓨터 열기'로 감기를 앓더니 '멀티미디어 증후군'으로 멀미를 하고 이제 '인터넷 신드롬'으로 몸살을 하고 있다. 이제 '사이버스페이스 증세'가 우리 몸을 언제 엄습할 지 모른다.³⁾ '정보화 담론'에 의하면 이제 우리는 '인터넷의 바다',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을 쳐야 할 듯 하다. 우리가 그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새로운 방향타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의 마음과 닿지 않는 정보는 폐품에 불과하다. 정보화

1) Nicholas Negroponte, 디지털이다, 백옥인 역 (서울 : 박영출판사, 1996), p.7.

2) 위의 책, p.6.

3) 김상현, “모르면 죽는다? '정보화 거품' 지나치다”, 뉴스플러스(동아일보사), 통권 33호(1996.5.9), p.26.

사회가 심화되면 우리는 어쩌면 거대한 쓰레기더미 속을 뒤져 보석을 찾아내야 할 지경에 이를 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쓰레기더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 '정보의 바다' 보다 피부에 와 닿고 또한 우려되는 것이 바로 '정보화 담론의 홍수'이다. 컴퓨터업자를 비롯한 정보산업 종사자들에게만 사실상 이득을 주는 정보화 담론은 이제 우리 사회의 교육현장을 용단폭격하고 있다. 언론의 지원사격을 받는 정보화 담론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한국의 교육기관을 '정보센터'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다. 우리의 학교를 고작 정보습득의 창구 정도로 왜소화하는 이러한 정보화 담론의 폐해는 측정하기조차 어렵다.

학교는 단순한 정보습득의 장(場)이 결코 아니다. 학교생활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고전(古典)을 접하게 되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키우게 되고 운동장 놀이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교사의 체험이 녹아있는 지식과 지혜를 수용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는 교실 뿐만 아니라 운동장과 도서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도시의 학교를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학교의 운동장을 확보하고 도서관을 가꾸는 일은 일반인의 관심 밖으로 점차 밀려나는 듯하다. 우리 사회의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야 좋을까? 그리고 바람직한 대학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인터넷 광풍(狂風)을 우려하는 한 전산학자의 아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예지를 건질 수 있을 듯 하다.

인터넷이 모든 정보의 갈증을 해소시킬 것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 작동법을 배우는 일은 상당히 번거롭고 짜증스럽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잡다한 노력을 보상해줄 수 있는 정도의 의미있는 일을 인터넷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부산대학교)의 연구도서관에 가 본 필자는 두 가지 사실에 크게 놀랐다. 그 하나는 재미있고 유용한 책이 놀랄 정도로 많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놀랄 정도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대학생들은 자료탐색과 정리에 관하여 거의 훈련이 되어있지 않다. 이런 "기초체력"은 등한시 한 채 인터넷에 무턱대고 들어간다고 해서 도움될 일은 별로 없다. 경험한 사람은 알겠지만 할 일 없이 들어간 PC통신망, 인터넷은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다. 사람들은 정리된 도서관, 훈련된 사서를 마다하고 잡동사니 정보로 가득한 인터넷의 바다에서 멋있게 헤매려한다. 나는 학생들이 인터넷의 걸멋에만 들떠 정작 대학생으로 갖추어야할 인문학적 교양인 '제대로 쓰고,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등한시하지 않을까 근심스럽다. 긴 호흡의 책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기껏해야 삼십여 줄 안팎인 짧은 글(주로 통신망에서의 글쓰기 문화)에만 맛을 들이는 것은 대학생 최악의 모습이다.⁴⁾

4) 조환규, "클리포드 스톨의 <허풍떠는 인터넷>", 부대신문(부산대학교), 1996. 6. 10, 5면.

위의 글은 이렇게 정보화 담론이 범람하는 시대에 있어서 무엇이 '기본(Basics)'인지를 알려주는 샘플같은 글이다. 그리고 그 기본의 영역에 '도서관(Library)'이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서관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계의 '미래도서관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 도서관현장으로 밀려드는 '미래도서관 담론'

정보화 담론의 도도한 물줄기는 이제 강둑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각 분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 행사(行事)나 간행물(刊行物)에 '정보화시대'를 운운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 도서관현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보화담론은 한국 도서관현장의 미래를 환상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른바 '전자도서관(digital library)⁵⁾을 축으로 하는 '미래도서관 담론'에 의하면, 미래에는 사람들이 도서관에 가지 않고 각자의 사무실이나 집에서 컴퓨터 키보드를 두들겨 필요한 모든 자료를 얻을 수 있을 듯하다. 여기서는 '컴퓨터기술을 맹신하여 미래의 도서관 모습을 환상적으로 그리는 언어들'을 '미래도서관 담론'이라고 불러본다. 그런데 과연 '미래도서관 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꿈같은

세계가 멀지않은 미래에 펼쳐질까? 그 진위(眞僞)와 허실(虛實)은 다음 장에서 차차 따져보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우선 이러한 '미래도서관 담론'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 도서관현장을 향해 '미래도서관 담론'을 흘러보내는 발화자(發話者)는 정부, 언론, 컴퓨터업계, 전산전문가 등 다양한 집단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 문헌정보학 연구자와 도서관현장 사서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생산하는 '미래도서관 담론'을 검토해 본다. 언제부턴가 한국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계의 문헌이나 세미나에는 '정보사회', '뉴미디어', '멀티미디어 혁명', '초고속 정보통신망', '21세기', '미래형', '전자도서관(digital library)',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 "가상현실도서관(virtual reality library)", "종이없는 도서관(paperless library)", "책없는 도서관(bookless library)", "벽없는 도서관(library without walls)",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 등등의 말들이 등장하였으며, 최근 그 출현하는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러한 환상적인 단어들이 없으면 한국의 도서관과 문헌정보학이 존립하기 어려울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이러한 '미래도서관 담론'을 생산하는 문헌정보학 연구자 및 도서관현장 사서는 한국 도서관의 현단계 보다는 미래에 보다 집중적인 관심을

5) "전자도서관"에 해당하는 영어는 두가지로 electronic library와 digital library가 있다. 도서관과 자료의 전자화를 의미하는 electronic library가 도서관의 테두리 속에서의 개념인 것에 비하여, digital library는 여러 가지 정보원을 디지털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정보에 접근(access)하는 것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도서관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개념이다. 현시점에서 '미래도서관 담론' 생산자들이 말하는 전자도서관은 digital library를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쏟는 듯하다.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은 진취적인 일이며 연구개발(R & D)이라는 작업에는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들이 현재 공론(公論)의 장(場)에까지 내놓고 있는 '미래도서관 담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위에서 살펴본 '정보화 담론'의 하위 논의로 기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된다. 예컨대 최근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정보화 담론'이 도서관 분야에 도래하여 '미래도서관 담론'으로 화려하게 꽃피워지는 모습을 목도할 수 있다.⁶⁾

다가올 21세기는 정보사회로서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그 양도 엄청날 것이라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예측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수록하는 매체도 다양하게 변화할 것이고 그러한 현상은 이미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 멀티미디어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멀티미디어시대인 21세기 대학도서관의 역할, 도서관자료, 사서 그리고 이용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21세기 대학도서관의 모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있던 인쇄매체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전자매체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에

외국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전자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 "가상현실도서관/virtual reality library" 등이 미래 대학도서관의 모형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을 바탕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에 근거한 정보사회의 기반구조의 구현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논문 A, pp.3-4)

멀티미디어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광케이블을 매체로 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가정까지 도달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붐은 사회 전체가 디지털화되가는 방향에 있고, 정보화사회를 향한 새로운 정보환경의 개막이며 패러다임의 변화에 상당하는 것이다. 멀티미디어의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컴퓨터, 통신·방송, 출판 등의 업계의 벽이 낮아지고 이것이 도서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 현재 종래의 도서관이 변신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다다랐고 그 새로운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이다. (논문 B, pp.115)

정보사회, 멀티미디어 혁명,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과 같은 말들은 실체없이 떠도는 언어들이다. 그것들은 정보사회라는 신기루를 따라 잡고자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정부와 언론이 양산하는 뿌리없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다.

6) 이 글에서 인용되는 '미래도서관 담론'을 담고 있는 글들의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밝히지 않기로 한다. 이러한 글들은 현재 한국 문헌정보학계에서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미래도서관 담론'의 일반적 경향을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로서 이 글에서 고려된 것 뿐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논문 A, B, C가 지난 해 가을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글들로 각각 미래형 대학도서관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대학도서관의 전자도서관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사회를 대비한 대학도서관 개념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이고, 논문 D는 올해 여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글로 정보환경의 변화와 대학도서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라는 정도만을 밝혀둔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언표(言表)들에 덩달아 춤을 추다 보니 자꾸 조급해지고 많은 무리가 생긴다. 가령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이것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은 이 사업에 뚜렷한 실적도 없이 예산이 3백70억원이나 과다계상된 사실을 지적하고, 사업비를 그 만큼 감액하고 핵심관계자들을 징계하도록 담당 정부부서인 정보통신부에 통보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러한 과실은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기획단만의 몫인가? ‘정보화 담론’이 초고속으로 종횡무진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조급증이 야기한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국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계도 예외없이 이러한 화려한 언어들에 실루엣을 쫓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위의 글들이 터하고 있는 인식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는다는 신기술우선주의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이 대학도서관에 적용될 경우, 위의 경우에서처럼 인쇄매체중심 패러다임에서 전자매체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conversion)’을 주장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미래도서관 담론’은 도서관의 핵심요소인 ‘장서’와 ‘건물’을 도서관의 부차적인 요소로 보면서 점차 이를 해체하려는 논의를 편다.

전자도서관에는 건물과 장서의 개념 없이 단순히 소재정보와 나아가 원문정보가 분산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도서관은 단말기가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도서관은 정보의 소유나 공간의 개념이 아닌 참조(reference)의 개념이다. 전세계에 널려 있는 정보를 연결하여 줄 뿐 그 정보를 소유하지는 않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도서관의 역할은 참조(reference)의 역할이며 참조의 기능을 가장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곧 사서인 것이다. … 건물과 장서는 도서관의 참조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요소이지 도서관의 절대적 요소는 아닌 것이다. (논문 C, p.94)

이수상은 우리나라에서 유포되고 있는 이러한 ‘미래도서관 담론’을 비판하는 글에서, ‘미래도서관 담론’ 생산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요약하고 있다.

첫째, 인쇄매체의 종말이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서관의 입장에서 보면, 종이없는 도서관(paperless library)이 곧 도래한다는 것이다. 둘째, 건물로서의 도서관이 사라지고 컴퓨터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대개 전자도서관(electronic library), 디지털도서관(digital library)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셋째, 개체도서관이 해체된다는 것이다. 더 이상 단위도서관의 의미는 없어지고 지역간, 국가간, 범세계적 도서관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 벽없는 도서관(library

7) “초고속 국가망 과실”, 국제신문 (1996. 7. 5), 1면.

without the wall), 사이버도서관(cyber library) 등이 그것이다.⁸⁾

‘미래도서관 담론’은 도서관의 기본을 다지는 작업보다는 신기술에 의한 도서관 개념의 비약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작업에 매진하게 된다. 새로운 기술을 부지런히 추적하면서 이를 도서관에 소개하고 도입을 유도하는 것은 분명 문헌정보학 연구자와 도서관현장 사서진의 사명이다. 그러나 기술을 도서관보다 상위 화두(higher idea)로 설정하여서는 곤란하다. 기술은 도서관의 발전에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되어야 한다. 또한 인쇄매체와 전자매체의 관계는 ‘전환(conversion)’이나 ‘대체(replacement)’의 문제가 아니라 ‘추가(addition)’와 ‘보강(reinforcement)’의 문제인 것이다.⁹⁾ 즉, 인쇄매체가 주종을 이루는 기존 장서에 전자매체가 추가되어 보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숨을 돌려 이러한 미래도서관 논의와 관련하여 미국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유용할 듯하다. 왜냐하면 우리 문헌정보학계가 그 최신 조류를 따라가기 위해 주목해온 미국의 경우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있지만, 주로 그 가운데 전도된 ‘미래도서관 담론’이 국내에 소개될 뿐이고 도서관인의 입장에서 그것의 오류를 지

적하는 글은 제대로 알려진 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 초대하는 손님들은 월트 크로포드(Walt Crawford)와 마이클 고먼(Michael Gorman)이다. 월트 크로포드는 미국 연구도서관그룹(RLG)의 선임분석가로서 1968년 이후 도서관자동화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도서관, 기술, PC작업 등을 주제로하여 많은 글을 쓰고 강연을 자주 해왔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10권의 단행본과 수십편의 논문을 생산하였다. 그는 미국도서관협회의 분과인 도서관·정보기술협회(LITA)의 회장을 역임(1992-1993)하기도 했다. 또한 마이클 고먼은 캘리포니아주립대학(프레스노 캠퍼스) 도서관장으로 서지통정, 도서관자동화, 도서관경영 등의 분야에서 강연도 하고 글도 써서 명성을 얻고 있다. 그는 시카고, 일리노이, 버클리 대학 등의 도서관학교(대학원과정)에서 강의를 해왔다. 그는 미국도서관협회가 수여하는 마가렛 만(Margaret Mann) 상과 멜빌 듀이(Melvil Dewey) 메달을 수상했다.¹⁰⁾ 이들에 의하면 ‘기술맹신주의(technolust)’의 주된 증세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것은 항상 이전 것보다 좋으며, 개발 중인 기술은 현재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보다 좋다고 믿는다.
- 기술은 그 자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의

8) 이수상, “미래도서관, 현실인가 환상인가: 우리 사서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전국사서협회소식, 제5권 4호(1996. 3), p.6.

9) 이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논의는 필자들 중의 한 사람인 김정근의 “주제접근법에 의한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모형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3집(1995.12), pp.285-328에 나타나 있다.

10)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Future Libraries: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and London: ALA, 1995), p.199.

생활양식이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 ‘기술맹신주의자들(technojunkies)’은 책과 도서관이 이제 쓸모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모든 기술적 개선은 가치있는 것이며 게다가 각각의 개선은 자동적으로 현존 시스템을 대체 (replacement)한다고 믿는다.
- 도서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기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 기술을 본질적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본다.
- 기술맹신주의자는 모든 아날로그매체가 거대한 디지털 고속도로에 일부분으로 합쳐진다고 하는 ‘디지털 수렴(digital convergence)’ 현상을 가정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책, 잡지, 비디오카세트 등을 포기하기를 원한다는 것과 또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지지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맹신주의자는 단지 디지털고속도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수렴’을 상상한다.¹¹⁾

위에서 보듯 미국의 도서관인으로 전산업무에 오랜동안 종사해온 윌트 크로포드와 마이클 고먼은 도서관현장을 침식하는 기술맹신주의에 대해 정문일침(頂門一鍼)을 놓고 있다. 그러면 계속하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의 공론의 장에 나타난 ‘미래도서관 담론’의 경우를 살펴보자.

21세기 대학도서관 정보조사제공의 중심은 사서에서 컴퓨터로 변화할 것이다. 오늘날 대학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도서관업무의 90% 이상이 21세기에는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대학도서관에서 소장하는 학술정보의 대부분이 전자매체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다. (논문 A, p.9)

위의 글은 21세기에는 컴퓨터가 인간의 정보요구의 거의 전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컴퓨터가 연결되어 거의 완벽하게 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 거울인 ‘유니버설 워크스테이션(universal workstation)’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유니버설 워크스테이션이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 컴퓨터업계와 미래론자가 고안해낸 용어이다.¹²⁾ 크로포드와 고먼은 유니버설 워크스테이션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진단한다.

- 가용성(availability) : 인류의 모든 기록물(인쇄물, 사진, 필름, 테이프, 그림 등)이 디지털형태로 전환되거나 창조되어야 한다.
- 발견가능성(findability)과 적절성(appropriateness) : 이용자가 유니버설 워크스테이션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전자문헌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신빙성(authenticity) : 검색된 문헌은 이용

11) 위의 책, pp.37-42.

12) 위의 책, p.88.

자가 원래 찾던 것이어야 한다.

- 유용성(usability) : 모든 전자문헌은 그것을 각 이용자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형태(매체)에 담겨져야 한다.
- 지적재산권의 보호(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 유니버설 워크스테이션에서 검색가능한 문헌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저자에 대한 적절하고도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비용의 합리성(affordability) : 디지털액세스의 경제적, 생태적 총비용이 전통적 매체의 비용보다 더 많아서는 안된다.¹³⁾

크로포드와 고먼은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유니버설 워크스테이션이란 성립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또한 위의 조건들이 충족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유니버설 워크스테이션이 인쇄물과 기타 아날로그 매체에 대한 완전한 대체물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유니버설 워크스테이션 개념은 사실상 적절한 목표가 아니라고 말한다. 유니버설 워크스테이션을 주장하는 기술맹신주의자들은 인쇄매체와 전자매체의 공존을 예측하지 못하고, 전자매체에 의한 인쇄매체의 대체(replacement) 논리에 매몰되어 있

는 것이다. 또한 크로포드와 고먼은 원시자료(primary record)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중요하며 특히 인문학자에게 그러함을 강조한다.¹⁴⁾

이상에서 한국 문헌정보학계 및 도서관계에서 점차 공론화되고 있는 '미래도서관 담론'의 일부를 살펴보고 약간의 논의를 일구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미래도서관 담론'을 펼치는 글들에 대해 도서관의 기본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다 비판적으로 버텨읽기¹⁵⁾를 해보고자 한다.

III. '미래도서관 담론'과 버텨읽기

1. 정보-지식-이해-지혜

기술은 대개 우리의 발걸음보다 켜 걸음으로 앞서 나간다. 그러나 기술이 앞질러간 길을 인간의 삶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신기술은 사회와 역사의 검증작업을 거쳐 인간의 삶으로 통합되기도 하고, 혼자서 길을 잃고 소멸하기도 한다. 신기술은 하나의 매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잘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기술에 의한 엄청난 힘의 획득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고통스러운 고경(苦境)으로부터 인간을 분명히 해방시키고, 그에게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

13) 위의 책, pp.88-89.

14) 위의 책, pp.89-90.

15) 여기서 '버텨읽기'는 어떤 담론이나 텍스트에 함몰되지 않는 주체적인 독서를 말한다. 이에 대해 영문학자 강내희 교수의 말을 들어본다. "버텨읽기'는 일종의 저항독서이다. 글이 어떤 억압의 체계를 가진다면 버텨읽는 것은 그 억압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버텨읽기는 확문에 있어서 대상의 수용에만 몰두하는 '공부'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공부의 태도는 공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세를 낮추고 몸을 굽히게 하는 것이므로 '굽혀읽기'의 독서방식을 택하게 한다. 버텨읽기는 반면에 독서자의 태도를 당당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주체적인 학문을 하게하는 '연구'의 방식이다. 또는 그것은 읽는 대상이 그 나타난 모습과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음을 간파하고자 하므로 깊이 읽는 것이기도 하다." 강내희, "영문학의 연구와 버텨읽기", 외국문학, 제12호(1987. 봄), p.137.

이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승하는 기술의 잠재력은 인간의 혼과 육체를 위협한다.¹⁶⁾ 따라서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기는 하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를 한 걸음 물러서서 살펴보는 작업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 및 매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그 파급 효과를 성급히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례로, TV가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라디오의 종말을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그 예언은 들어맞지 않았다. 오늘날 TV는 우리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 그 번영을 구가하고 있지만 라디오를 많이 몰아내지는 못했다. 아니 라디오는 그 나름대로의 영역을 만들면서 보다 친근하게 우리 곁에 있다. 가령 우리가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거나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라디오가 있다. 또한 운전자나 눈이 밝지 못한 노인들에게 라디오는 친숙한 벗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TV를 볼 때 무언가를 조용히 생각하거나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라디오 문화는 TV 문화보다 건강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질을 고양하는 데 있어서 신기술을 맹신하는 사고를 경계하고 기술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마음의 4가지 자산(資産)¹⁷⁾인 정보(情報, information), 지식(知識, knowledge), 이해(理解, understanding), 지혜(智慧, wisdom)를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4

가지 자산을 앞에 두고 보면 우리는 정보가 가장 낮은 단계의 자산이고 지혜가 가장 높은 단계의 자산이라는 애들러(Adler)의 생각에 동의하게 된다. 크로포드와 고먼은 이 자산들을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 풀이하고 있는데, 특기할 점은 정보를 다시 2가지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는 데이터(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사실과 원시자료)와 정보(유용하도록 가공된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이 둘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즉, 그것들에는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마음이 개재되어 있지 않고, 그러므로 전자기술을 이용한 처리(processing)나 전달(transmission)에 특히 알맞다. 우리가 '배움의 사다리(ladder of learning)'를 타고 높이 올라갈수록, 인간정신이 극히 중요해지는 반면 컴퓨터는 그 역할이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지식은 의미(meaning)로 바뀐 정보로 정의될 수 있다. 그것은 기록되고 전달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러한 전달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매체가 결코 아니다. 이해는 어떤 세계관과 개인적 관점이 반영된 지식을 말하며 전적으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 그리고 지혜는 이해가 완전하고 생산적으로 된 상태를 말하며 역시 인간정신에 의해서만 구현된다.¹⁸⁾

위의 글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보를 찾고

16) Friedrich Klemm, 기술의 역사, 이필렬 역 (서울: 미래사, 1992), p.269.

17) Mortimer Adler, *A guidebook to learning* (New York: Macmillan, 1986), pp.110-134,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앞의 책, p.4에서 재인용.

18) 위의 책, p.5.

구하는 지를 잘 보여준다. 위의 글은 '정보화담론' 및 '미래도서관 담론' 발화자들 때문에 하마터면 우리가 잊고 살 뻔했던 지식, 이해 그리고 지혜라는 단어를 상기시켜 준다.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한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은 궁극적으로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배움의 길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정보를 신주단지인양 모시고 살려 한다(아니 어떤 사람들은 벌써 그렇게 살고 있다). 한국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다음의 글을 읽어보자.

도서관에 **정보**(책, 연속간행물 등)가 입수 되면 수서과에서 등록업무를 마치고 정리과로 넘겨진다. 정리과에서는 입수된 **정보**를 가공(분류, 목록)하여 2차자료를 생산하여 **정보**는 서가에 그리고 2차자료는 목록으로 보낸다. 드디어 정리과를 거쳐 나온 **정보**는 열람과에서 관리하여 이용자들의 이용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역으로 새로운 **정보**의 구입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또는 수서과 나름의 결정에 의해 수서과에서 일괄 수집, 주문하는 절차를 밟는다. (논문 C, p.77)

위의 글을 사람들이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정보화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도서관의 이미지가 떠오를까? 컨베이어벨트로 움직이는 정보를 가공하는 정보공장의 내부가 그려지는 듯도 하다. 위에서 말하는 정보란 사실상 문헌을 의미한다. 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위 논자의 고심(苦心)이 위 글에 서려 있는 듯도 하지만,

'문헌'이라고 말해도 될 것을 굳이 '정보'라고 말하여 너무 비약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도서관을 인간정신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일터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낳고 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을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몰아가는 '미래도서관 담론'은 최근 대학도서관과 전자계산소의 통합을 주장하는 양상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정보의 입수 및 생산, 조직화, 체계화를 통한 **정보**조사·제공이라는 도서관 본래의 기능과 학생교육지원, 학사행정지원, 교수연구지원, 사회지원이라는 대학전자계산소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정보**화된 대학캠퍼스내에서 대학도서관과 전자계산소를 기능적으로 통합한 통합**정보**서비스기구는 결국 대학전자계산소 본래의 지원기능을 도서관의 **정보**서비스기능에 통합함으로써 발전된 **정보**기술을 도입하고 **정보**화시대의 **정보**요구 및 **정보**환경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확장·강화시킨 미래형 대학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논문 D, p. 6)

과연 대학도서관이 전자계산소와 통합되면 그 기능이 확장·강화되어 이른바 전자도서관(더 나아가 가상도서관)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인가? 오히려 대학도서관의 몰락을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 도서관과 전자계산소는 그 사회적 의미와 역사적 존립기반이 분명히 다르다. 대학의 활동을 전산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인 전자계산소가 **정보**의 속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인류

의 지적 유산과 현시대의 가치있는 기록의 수집과 이용에 보다 근본적인 관심을 가지는 도서관은 정보만을 다루는 기관이 결코 아니며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그 속도보다는 내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다. 문헌정보학 연구자는 도서관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하고, 도서관의 사명을 왜곡하거나 축소하는 어떠한 논리도 막아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글의 경우처럼 '정보'만을 강조하다 보면, 도서관의 기능을 변형시키고 왜소하게 만들고자 하는 도서관 외부의 논리에 발미를 잡히게될 가능성이 커진다.

위의 글은 미국의 매릴랜드대학(볼티모어)과 컬럼비아대학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이러한 통합 논리를 펴고 있는데, 도서관선진국의 대학도서관은 오랜 세월에 걸쳐 개발한 장서를 바탕으로 대학사회의 학문적 요구를 심분 충족시키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최근(1994-95) 통계에 의하면 매릴랜드대학도서관은 2,464,623권, 컬럼비아대학도서관은 6,664,748권의 장서를 배경으로 대학의 학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¹⁹⁾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국내에서 가장 나은 대학도서관으로 간주되는 서울대학교도서관의 경우에도 1,793,746권 (1995년 12월 31일 현재)에 불과하고 거의 모든 대학도서관이 적게는 수천권에서 많게는 수십만권 정도의 빈약한 장

서를 보유하고 있다.²⁰⁾ 무엇보다 절망적인 것은 장서의 질이다. 김종엽은 연구자들에게 절망감만을 안겨온 서울대학교도서관을 '기호와 무덤', '환멸의 도서관'이라고 부르면서 대학원생들의 술자리에서 도서관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자는 이야기가 나온지 오래되었다고 전한다.²¹⁾ 미국 프린스턴대학교도서관에서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사서로 봉사한 휘트니 코는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 인문사회과학분야 서양서를 평가한 결과 심층적이고 폭넓은 자료는 고사하고 대학의 기본적 연구조차 뒷받침할 수 없는 장서라고 진단하였다.²²⁾ 이른바 국내제일의 경우도 이러한 사정이니 여타 대학도서관의 사정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대학에서 학문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환멸만을 삭히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해방 후 50년이 지나도록 우리의 대학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실 정도로 기능하고 있을 뿐, 사서들의 땀과 기술이 반영된 폭넓고 다양한 자료를 배경으로 대학의 학문활동을 지원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 대학도서관이 이렇게 환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유에는 역사적·사회적 제반 내력과 사정이 있겠지만, 김정근(필자들 중의 한 사람)은 '떡(something to eat)'로 주어지는 도서관장 자리, 그로 인한 도서관장의 비전문성과 직무유기, 도서관에 관한 한 문외한이면서도 수서업무를

19) Martha Kyrillidou . Kimberly Maxwell . Kendon Stubbs, eds., *ARL STATISTICS 1994-95* (Washington, DC : ARL, 1996), pp.22-24.

20)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편, *국립대학도서관보* (서울 : 동 협의회, 1996), p.234.

21) 김종엽, "환멸의 도서관", *웃음의 해석학, 행복의 정치학* (서울 : 한나래, 1994), pp.87-96.

22) 김교만, "서울대도서관, '빈약' 세계 99등", *문화일보*(1994. 9. 7), 1면.

비롯한 도서관운영을 장악해온 행정직, 그러한 행정직의 비호아래 쓸모없는 재고도서를 공급하는 등 서비스수준이 낮은 도서공급업자, 자료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또한 도서관운영을 주도해나가기에도 역부족인 사서진, 대학도서관의 자료와 무관하게 주로 약간의 텍스트북으로 교수의 입شم에 의존하여 진행되는 일방통행식 대학강의 등등의 지극히 한국적인 근본적 병폐를 지적한 적이 있다.²³⁾ 우리의 의식과 관행, 현실은 이처럼 전근대적이고 제3세계적 상황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노정하고 있는 반면, 대학도서관과 전자계산소의 통합이라는 기술적 차원의 단순해법은 가볍디 가볍기만 하다. 이러한 통합논리에 대해 이 글과 같은 진단외에도 대학도서관의 기본에 입각한 많은 반론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크로포드와 고먼의 이야기를 빌어 대학도서관이 가진 특수성과 다양성을 무시하는 이러한 '거대 해법(grand solution)²⁴⁾의 위협에 대해 좀더 짚어 보고 넘어가고자 한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은—심지어 매우 전문화된 도서관까지도—점차 복잡해지는 요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봉사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하여 더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여야 한다. 한 가지 방안으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없으며, 단순히 '오직 전자(electronics-only)'라

는 방안을 채택하는 도서관과 사서는 곤궁에 빠질 것이다. 어떤 도서관의 유일한 선택이 '전자(electronic)'라면 그 도서관은 자신을 과거와 지식의 세계로부터 유리시키게 될 것이다.··· 지각있는 사서라면 도서관이 결코 데이터와 정보의 단순한 보관소의 역할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데이터와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도서관이 가진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그것은 도서관의 전부가 아니다. 도서관은 학습의 장소이며 그 안에서 사람이 지적으로 변화하는 곳이다. 또한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읽을거리와 우연히 머리와 마음에 와 닿는 무언가를 제공하기도 하고, 현실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게 하는 계기를 가지게 하기도 하고, 모든 인간정신의 진수를 찾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²⁵⁾

이 장에서 언급한 '미래도서관 담론'의 사례들은 우리 학문의 명칭이 도서관학에서 문헌정보학으로 바뀐 것을 문제삼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일으킬 만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글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약간의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최근 한국 문헌정보학계는 문헌정보학의 위상이나 교과

23)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울, 1995) 참조.

24) 여기서 '거대해법'이란 크로포드와 고먼이 이름붙인 말로 도서관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그들은 기술맹신주의자들이 대학도서관 문제의 복잡성과 다층성을 간과하여 다양하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대학도서관을 성장시켜나가기려 하지 않고, 컴퓨터기술에 의한 유니버설 워크스테이션의 실현을 환상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앞의 책, pp.86-90.

25) 위의 책, pp.117-118.

과정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나 외부에 대한 논리적 대응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에 부심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전체적 차원에서 표출하고 있다.²⁶⁾ 한국의 문헌정보학은 우리나라 도서관 및 관련기관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²⁷⁾ 따라서 우리 문헌정보학은 우리 도서관현장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를 생산하고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땅의 도서관들은 전문도서관의 경우를 약간의 예외로 보더라도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거의 모든 관종이 개척기의 단계에 놓여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 현장을 일으켜세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한국 문헌정보학계에서 이른바 '정보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애를 쓰다보니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같은 기본 관종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²⁸⁾ 정보화시대에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 논자는 도서관에 있어야 할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첫째, 남들과 더불어 숨죽일 수 있는 질서의식
과 이를 배우는 순진성

둘째, 공부하는 조용한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는 공동체 의식
셋째, 웃음 머금은 표정을 지닌 사서들과 예의를 지키는 적응력
넷째, 책으로 이루어진 벽, 이런 벽이 만들어내는 기품있는 분위기
다섯째, 책상과 결상 및 자료함 따위의 기본시설물이 지니는 우아함
여섯째, 누구나 발끝으로 다니는 기본적인 예의와 에티켓
일곱째, 쉼터(녹색공간, 전시관, 감상실, 간이스낵)
여덟째, 자원봉사제도
아홉째, 마이크로필름 같은 기기

위의 글은 따뜻한 느낌을 준다. 그런데 어떤지 먼 나라의 이야기 같기만 하다. 우리 사회는 이런 도서관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가지고 있는가? 이제 우리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은 '정보'만이 아닌 '지식', '이해' 그리고 '지혜'를 반영하기 위해 일대 방향전환을 시도해야 하는 계제에 다다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도서관을 겨우 정보공장 내지 정보센터의 수준으로 떨

26)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1996년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안내자료(김태승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회장 발신, 1996. 6. 5) 참조. 6월 21일 열린 세미나에서 필자들 중의 한 사람인 김정근이 "한국문헌정보학의 위상정립과 교수협의회회의의 역할: 우리 학문의 실천성 문제와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고, 이어 "학부제에 따른 문헌정보학의 제반 문제"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한상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최석두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은철 교수가 각각 발표를 하였다.

27) 이에 대해 최성진 교수(성균관대학교)가 지난해 열린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기조연설에서 역설한 바 있다. 최성진, "광복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5), pp.10-11.

28) 이러한 문제를 두고 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가 신문고를 올리고 있다. 이덕주, "누가 학교도서관을 죽이는가?", 도서관운동(도서관운동연구회), 제2호(1996. 3), pp.19-26.

29) 유경환, "우리는 도서관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도서관, 제48권 5호(1993. 9.10), p.7.

어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다시 우리의 초대손님 크로포드와 고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우리 사서들은 도서관이 정보만을 전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심지어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한 어조로 말하도록 하자. 도서관은 인류가 더욱 넓고 깊은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기록된 지식을 보존하고 배포하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 이해에 도달하며, 궁극적으로 지혜를 얻는다. 데이터(파편의 사실들, 숫자 등)와 정보(조직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흡수하는 것은 종종 두서가 없고 불규칙적이며 순간적이다. 그것은 실용적인 용도(종종 짧은 기간)에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게 획득된 정보가 (인간이) 알기 쉬운 지식 구조로 맞추어지지 않는 한 결코 지속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인간은 정보만으로는 살 수가 없으며, 지식과 지혜없이 정보만을 가지는 사회는 사람들이 (진지한 성찰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문화가 횡행하는 사회이다.³⁰⁾

도서관은 단순히 정보를 퍼뜨리는 매스미디어가 아니다. 이용자들은 각자 자신의 필요에 의해 도서관을 찾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

에서 대개 '깊이있는 독서(sustained reading)³¹⁾를 하거나 '진지한 사고(reflective thought)³²⁾를 하게된다. 사람들이 깊이있는 독서를 통해 진지한 생각을 하게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컴퓨터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지속적이고 깊이있는 독서를 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컴퓨터로 글을 읽는다면 눈이 쉽게 피로하게 되어 장시간 계속할 수가 없다. 또한 컴퓨터화면은 책처럼 온전하게 한 페이지를 한 눈에 보여주지 않는다. 책은 우리의 책상, 소파, 머리맡 등 생활공간의 곳곳에서 친근한 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집을 나설 때도 따라가기도하여 공원의 벤취, 기차의 좌석, 바닷가 모래밭 등 여로의 여러 길목에서 투정하지 않는 대화상대가 되어주기도 한다. 전자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선불리 책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독서습관을 무시하는 몰역사적인(ahistoric) 분석일 뿐만 아니라 기술맹신주의(technolust)로부터 비롯된 가볍디 가벼운 담론이다. 훌륭한 책은 야간도주자처럼 신뢰하기 어려운 기술(fly-by-night technology)과 같은 차원의 것이 결코 아니며, 그것은 우리의 손과 머리와 몸이 잘 어울리기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벗으로 남아있을 것이다.³³⁾ 컴퓨터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그 자료를 여유있게 자세히 읽거나 간직하기 위해 대개 프린터로 출력하

30)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앞의 책, pp.5-7.

31) 위의 책, pp.17-18.

32) Jesse H. Shera,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Littleton, Colo. : Libraries Unlimited, 1976), p.63.

33) Allan Kornblum's speech at the Library of Congress, *LC Information Bulletin*(December 13, 1993), p.466,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앞의 책, pp.18-19에서 재인용.

기를 선호한다. 도서관에 전자매체가 도입되고 보장된다고하여 인쇄매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기존 장서에 대한 요구가 원활해지고 인쇄자료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일과 후나 주말에 공공도서관을 찾아 밝은 불빛(아늑한 개인용 스탠드라면 더욱 좋다) 아래 독서에 빠져드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을 '정보'를 초고속으로 찾는 이용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도서관은 정보공장도 정보기관도 정보상점도 아니다. 우리는 도서관을 단순한 정보의 공급자의 차원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이기는 하지만, 도서관의 사명이 언론사의 그것처럼 정보의 신속한 전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서관은 정선되고 가공된 정보, 2차정보, 깊이있는 정보 등을 다루며 반드시 정보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한 걸음 물러서서 사람들에게 읽을거리와 생각거리를 제공한다. 도서관은 통시대적인 고전(古典)과 공시대의 역작(力作)을 비롯한 인간정신을 풍부하게 하는 각종 자료를 자신의 서가에 갖추어 두고 사람들을 맞는 것을 자신의 주요한 사명으로 한다. 이러한 책무는 마음의 4가지 자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정보를 제공하는 일보다 차원 높고 가치있는 일임에 분명하다.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자는 이러한 도서관을 우리나라에 가꾸어나가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아야 하지 않

을까? 정보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기본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도서관의 적들

우리는 고대(기원전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의 찬란한 도서관을 기억한다. 고대도서관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의 최우선 목표는 가능한 가장 좋은 그리스의 문헌 전체를 수집하는 동시에 그것을 배열하여 주석을 다는 것이었다.³⁴⁾ 고대 그리스세계를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약 50만 권의 두루말이를 가진 이 도서관은 그야말로 당시 학문활동의 최고 전당이었다.³⁵⁾ 이 도서관은 그 뒤 기원전 47년 로마의 정복자 시저(Caesar)에 의해 부분적으로 파괴되었고, 서기 391년 경 그리스도교의 대사교 테오필루스(Theophilus)에 의해 심하게 파손되었다.³⁶⁾ 이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이 도서관은, 지식을 사랑한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 의해 처음 설립된 이후 900년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도서관의 장서를 완전히 불태워버린 사건이 다음과 같이 발생하기 전까지 말이다.

암로우 이븐 알라가 알렉산드리아를 정복했을 때, 그는 도서관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칼리프 오마르에게 물었다. 그의 대답은 애석하게도 다음과 같았다. “만약 그 책들이 알라의 서적과 일치한다면 없어도 상관 없습니

34) 정필모·오동근, 도서관문화사 (서울: 구미무역, 1991), p.29.

35) Clifford Stoll, 허풍떠는 인터넷, 한경훈 역 (서울: 세종서적, 1996), p.303.

36) 정필모·오동근, 앞의 책, p.30.

다. 왜냐하면 알라의 책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
입니다. 만약 알라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책
을 태워 공중목욕탕 물을 데웠다. 다 태우기까
지 6개월이나 걸렸다고 한다.³⁷⁾

위의 예를 비롯하여 고대에서 지금까지 도서
관을 파괴한 적(敵, enemy)은 많이 있었다. 오
늘날 세계에 있어서 도서관의 파괴자는 누구일
까? 컴퓨터와 인터넷과 관련한 평론으로 유명한
클리포드 스톨(Clifford Stoll)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도서관현장을 지키고자 하는 사서들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본다.

나는 컴퓨터가 도서관을 내부에서부터 악의
적으로 잠식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컴
퓨터는 책 구입비를 삼키고, 아이들이나 학자
들과 부딪치기보다는 컴퓨터조작을 좋아하는
사서들을 요구할 것이다. 도서관은 점점 저질
정보를 고속으로 일반에게 공급할 것이다. 결
과적으로 책 없는 도서관이 아니라 가치없는
도서관이 될 것이다.³⁸⁾

컴퓨터가 도서관의 적이라는 지적은 재미있
다. 그러나 컴퓨터는 죄가 없다. 컴퓨터는 인간
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는 원자폭탄 자체를 원망할 수
없다. 오히려 비난받아야 하는 자는 그것을 만
든 사람과 그것이 있기에 사용한 사람이다. 사
실 실물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미래도서관 담론’을 생산하는
기술맹신주의자들이다. 문제는 도서관현장의 사
서들이 이러한 ‘미래도서관 담론’에 좌우되기 쉽
다는 것이다. 다음의 이야기들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우리 도서관의 한 사서가 일전에 각종 전자
매체를 소개하는 자리에 갔다가 전하는 말이
다. 그 때 다른 어떤 사서가 대뜸 ‘이제 책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단언하더라는 것이다. 그
만의 주장이 아닐 것이다.³⁹⁾

요즈음 우리 도서관계와 사서들은 전산화 만
능주의의 오류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도서관전산화만 되면 기존의 왜곡되었거나 잘
못된 도서관현상들이 모두 치유되고 덮어질 것
이라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듯 싶습니다.⁴⁰⁾

한편 이처럼 사서들에게 점차 깊은 영향을 끼
치고 있는 ‘미래도서관 담론’을 생산하는 연구자
들에게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하는 현장 사서
도 있다.

37) Clifford Stoll, 앞의 책, p.304.

38) 위의 책, pp.305-306.

39) 이수상, 앞의 글, p.7.

40) 조왕근, “‘미래의 도서관’에 대한 우리의 환상: ‘디지털도서관’이 만능의 해결사는 아니다!”, 전국사서협회소식, 제5
권 4호(1996. 3), p.15.

언젠가 우연한 기회에 제법 규모가 큰 대학 도서관의 중견관리자(과장급)와 교육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된 적이 있다. 여러 가지 도서관문제, 특히 전산화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였는데, 회의말미에 서울의 어느 사립대학교 도서관의 중견관리자가 교육부 당국자에게 불쑥 한마디 하는 것이었다. '도서관을 잘 모르는 젊은 학자들에게 제발 연구용역을 맡기지 말아달라. 그들은 우리 현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만 한다. 차라리 우리들 같은 현장 사서들에게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요지의 발언이었다. 이런 말에 회의 참석자들은 웃고 말았지만, 나는 무엇인가 씁쓸한 느낌을 받고 돌아왔다.⁴¹⁾

이것이 왜 말인가? 우리나라 도서관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신기술의 발전을 따라잡고 도서관현장으로 이를 도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관련 연구자들을 도서관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불신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래도서관 담론'이 무성하고 정보학 논문이 양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도서관현장은 제대로 개척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학계에 대한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도서관에서 3년이 넘게 전산업무에 종사해온 한 사서의 고언(苦言)이다.

저는 도서관의 자동화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이 초창기에 한국에 도서관학이 처음 이식될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도서관학이 미군정과 함께 이식되었듯이 거의 무비판적으로 미국의 정보학 이론을 수용하고 그 틀에 우리를 맞추어 가기가 바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철저한 자기고민 과정 없이 미국의 도서관학을 이식해왔으며 기술적, 외형적인 발전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러한 추세를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장은 후진국 수준이면서 걸맞지 않게 미국의 최신이론으로 무장해버린 기형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 수많은 정보학 논문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당장 눈앞의 불을 끌만한 현장성 있는 논문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침서나 사례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죠. ... 요즘 자동화가 무슨 유행처럼 급작스레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올바르게 방향을 정립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왜곡된 상황으로 도서관이 빠져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⁴²⁾

이 정도의 고민을 안고, 우리의 초대손님 월트 크로포드와 마이클 고먼에게 미국 도서관의 적은 누구인지 물어보도록 하자.

아마도 도서관의 적들 중에서 가장 해악이 큰 그룹은 우리들의 직업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다. 즉 그들은 우리들의 직업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사서와 도서관학 교육자로서, 도서관직(librarianship)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생계

41) 이수상, 앞의 글, pp.11-12.

42) 조왕근, 앞의 글, p.17.

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면 벌써 도서관직이라는 명칭과 실무로부터 벗어나고도 남았을 사람들이다.⁴³⁾

이처럼 크로포드와 고먼은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도서관직 '내부(within)'에 도서관을 망치는 적들이 있다고 다소 충격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우선 사서의 경우이다.

한 도서관시스템의 책임자가 자신을 도서관장(library director)이라고 하지않고 사장(chief executive)라고 부르면서 그 도서관의 모든 사서를 정보전문가(information specialist)라고 불리도록 조처한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공공도서관 사서를 “정보전문가”라고 부르는 것은 공공도서관이 정보의 제공만을 그 유일한 기능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은 과격하고도 자멸적인 일이다. 한편 의회도서관장이 의회의 발언대에서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장점을 지적하고 책만큼 실용적이고 이용자와 친숙한 매체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전자정보가 “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그는 공공도서관이 장차 전자정보를 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제공하는 봉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것도 책을 비롯한 인쇄자료를 제공하는 것 '대신'이 아닌 '추가'된 서비스로서 말이다.

이 의회도서관장은 도서관학석사 학위(MLS)를 가지고 있지 않고 위에서 언급된 공공도서관장은 도서관학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이들 중 어느 전문가가 도서관에 보다 도움이 되는가?⁴⁴⁾

우리의 초대손님 크로포드와 고먼의 어조는 신랄하다. 계속해서 미국 문헌정보학 교육자의 경우를 들어보도록 하자.

반(反)도서관, 반(反)사서 감정을 야기하는 또다른 집단은 문헌정보학 교수진 속에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인쇄매체의 종말을 가장 열렬히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미래사서를 양성하는 교수진 중 소수는 도서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사서가 되어 도서관에서 일생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도서관의 미래를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들이 도서관학교의 이름에서 “도서관”을 빼버리고 그들의 생계에 있어 중요한 존재인 학생들로 하여금 (도서관에 대해) 진지한 흥미를 잃게 만든다면, 그들의 학교가 주변적인 것이 되고 어떤 경우 문을 닫게 되더라도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인 것이다.⁴⁵⁾

이것은 미국의 경우이기만 한 것일까? 미국의 경우는 도서관이 그 기본적 의미에서 거의 완성된 수준에 올라있다고 본다. 오랜 경험과 노력

43)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앞의 책, p.105.

44) 위의 책, pp.105-106.

45) 위의 책, p.106.

에 의해 장서개발을 하고 지역사회 봉사를 하는 미국 도서관의 경우에도 도서관의 기본을 흔드는 '미래도서관 담론'이 횡행하는 것을 보면, 도서관현장이 굳건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래도서관 담론'의 폐해가 보다 클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들 중의 한 사람인 김정근은 최근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1996년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이러한 우려를 다음과 같이 말해 본 바 있다.

나는 여기쯤에서 우리 분야의 학술적 글쓰기에 있어서 '실천성' 확보를 위하여 아주 거칠게 초벌구이 정도의 덜 굵은 상태로나마 방안을 한 번 제시해 보려고 한다. 나는 우선 '논제'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학술적 글쓰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가 문제라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분야의 논제들은 '전술적으로' 너무 분산되어 있다. 우리 학문의 미래와 우리가 길러내는 졸업생들의 미래가 기본적으로 도서관과 그 관련기관의 발전에 달려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한 사회적 요구와 위임사항이 바로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글쓰기에는 그 비중이 만족스럽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 연구자들은 무책임할 정도로 아무 방향으로나 시위를 당겨 아까운 화살만 낭비한다는 느낌이다. 에너지가 이처럼 분산되는 판에 거기에서 무슨 힘이 생겨나겠는가? 그리고 설령 도서관과 그 관련기관과 관련하여

논제가 잡힌 경우에도 문제는 있는 듯하다. 이 경우에는 남의 이야기와 미래의 이야기가 지나칠 정도로 비중을 차지한다. 쉬운 말로 판단 벌렸다 하면 미국 이야기요 21세기와 첨단 이야기이다. 반면, 우리 도서관과 관련기관의 현실은 원시 그대로이다. 그 하늘을 나는 학술적 용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장은 땅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학술적 글쓰기와 현장은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이 따로 존재하는 듯이 보인다. 나는 처음부터 테두리밖에 헤매는 논제도 문제이지만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마저 흑점을 향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그에 못지 않게 문제라고 본다. 나는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우리 학문의 서구추수성, 그것으로 인한 식민성 그리고 연구자 자신들의 지적 허위의식이 한몫들을 한 것이라고 본다.⁴⁶⁾

위의 글은 한국 도서관현장을 개척하고 가꾸어 나가는 데 연구와 교육의 영역에서 진력해야 할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자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도서관현장에 대한 '집단불감증'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문제가 그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즉, 미국 문헌정보학 교수진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문헌정보학 연구자의 경우는 우리의 문제를 푸는 데 도서관선진국의 이론을 과도하게 참조하는 '식민성'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46) 김정근, "한국문헌정보학의 위상정립과 교수협의회 역할: 우리 학문의 실천성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문헌정보학 교수협의회(회장 김태승) 1996년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기조연설(대전 유성, 1996. 6. 21), p.11.

IV. 세계일류 - 기본에서 시작

“세계일류,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삼성의 PR 문구이다. 이 PR에는 음악가 베토벤의 스승이 베토벤에게 “정열은 있다. 그러나 기본이 없다”라고 한 말이 인용되고 있다.

이 글은 이상에서 도서관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국 도서관현장, 그 중 특히 대학도서관현장에 영향력을 점차 발휘하고 있는 ‘미래도서관 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 보았다. 재론하거나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글은 기술을 폄하하거나 혐오하는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나머지 도서관의 기본을 망각하고 심지어 도서관현장의 근저를 뒤흔들어 놓으며 종국에는 도서관의 종말을 선도(?)하는 연구행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시각에서 이 글을 생산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본 논문들이 ‘미래도서관 담론’의 대표주자라는 것도 아니다. ‘미래도서관 담론’은 문헌정보학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전산전문가, 공학자, 도서관장 및 도서관정책 담당자, 언론인, 컴퓨터업자 등의 머리카락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대로 ‘미래도서관 담론’은 한국 도서관현장의 사서진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이상에서 보듯이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은 도서관의 기본을 다지고 보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도서관자동화가 사서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변화하는 정보기술의 도전에 응전하여 도서관의 기본을 세워나가는 일은 쉽지 않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를 놓고 한 사서가 토로한 것이다.

문헌정보학과(구 도서관학과)를 다닌 사람이라면 도서관자동화론이나 전산화론의 마지막 강의쪽 교수님의 이런 열광을 기억할 것이다. 도서관전산화는 기존 인력의 감축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산화로 인해 단순반복업무 기계에 맡기고 사서로서의 고유업무인 참고봉사나 연구, 교육에 사서가 더 몰두하여 좀 더 차원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⁴⁷⁾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대학도서관의 전산화로 사서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장서개발, 참고봉사, 상호대차 활동에 매진하게 되었는가? 그리하여 대학도서관의 경우 대학의 학문활동을 지원하는 ‘대학의 심장’이 되었는가?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물음에 아직(아니 앞으로도 오랜동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한양대도서관의 전산업무에 종사해온 사서가 전하는 말을 들어보자.

한양대에서 처음 문헌정보검색시스템을 캠퍼

47) 박주원, “‘노동의 종말’ 대(對) 도서관전산화의 종말”, 도서관운동(도서관운동연구회), 제2권 2호(1996. 6), pp. 107-108.

스네트워크를 통해 오픈하고 접한 이용자들의 몇몇 반응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도 드디어 전산화했습니까? 고생 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이 참 잘 되었네요. 원도우환경이라 별로 어려움없이 이용하기도 쉽고... 그런데 저는 도서관을 별로 이용하지 않아요. 볼 만한 자료가 없어서요.” 이 말을 듣고 실무자로서 매우 비참하고 허탈감을 느꼈습니다.⁴⁸⁾

역시 기본이 중요하다. 이 기본의 범주에 책과 같은 인쇄매체가 있고, 사서진이 현장에서 개발하는 기술과 팜이 있다. 대학사회의 학문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서진이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개발하는 장서, 책을 책으로 이어지게 하는 장서가 이 기본의 범주 속에 있다. 전자기술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하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지식은 우리의 의식, 팜 그리고 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만들어진다. 우리의 초대손님, 크로포드와 고먼이 미래의 도서관을 두고 진단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 첫째, 미래에는 인쇄매체와 전자매체의 커뮤니케이션이 공존한다.
- 둘째, 미래에는 일차원적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가 공존한다.

- 셋째, 미래에는 사서에 의한 중개와 (이용자에 의한) 직접접근이 공존한다.
- 넷째, 미래에는 소장과 접근이 공존한다.
- 다섯째, 미래에는 건물로서의 도서관과 인터넷이로서의 도서관이 공존한다.⁴⁹⁾

장차(아니 현재에도) 도서관이 “인쇄인가 아니면 전자인가” 하는 단순화된 논의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된다. 크로포드와 고먼은 미래에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유형의 자료를 다양한 서비스로 제공하는 성공한 도서관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하며,⁵⁰⁾ 사서진이 이러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

- 첫째, 인류와 지역사회에 대한 인간적 봉사가 도서관이 존재하는 기본적 이유임을 명심하라.
- 둘째, 데이터와 정보가 아닌 지식과 이해가 도서관의 주요 관심사임을 인식하라.
- 셋째, 도서관직의 주요한 윤리적 관심사인 자료와 정보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 봉사, 협동, 지적 자유를 수호하라.
- 넷째, 도서관과 사서가 수세기 동안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존중해 온 방법에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그 중대한 사명을 수용하라.⁵¹⁾

48) 조왕근, 앞의 글, p.15.

49)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앞의 책, pp.178-181.

50) 위의 책, pp.178-179.

51) 위의 책, p.182.

크로포드와 고먼은 미국사람들이다. 위의 메시지는 미국 도서관인으로서 도서관의 기본을 다져 나가는 충언들이다. 우리의 경우 랑가나단의 5대 법칙처럼 위의 메시지들은 새겨들을 만하다. 필자들의 과문 탓인지 한국 문헌정보학계에서 이와 같은 발언은 잘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가 우리의 도서관문제를 풀려고 할 때, 우리 현장의 발전에 이바지할 적실성있는 연구를 하고자 할 때는 크로포드와 고먼보다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을까 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학문의 서구추수성으로 인한 이종고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들 중의 한 사람인 김정근은 다음과 같이 어떤 기회에 의견을 제시해본 적이 있다.

나는 우리 문헌정보학 연구자가 우리 도서관과 그 관련기관의 현단계를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단계에서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화두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말단, 지엽, 첨단에 눈이 쏠리지 말고 기본과제에 집착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방향 위에서 서양과 미래는 하나의 참고로서 보아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⁵²⁾

우리는 세계의 모든 자료를 앗은 자리에서 보는 유니버설 워크스테이션(universal workstation)에의 꿈을 버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하자. 그 유니버설 워크스테이션에 들어있는 자료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려면 우리의 의식

과 노력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유니버설 워크스테이션을 유지하는 기술이 자꾸 변화하여 먼 미래에는 우리가 전자화면으로 읽을 수 없는 자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기억하자. 우리가 기술에 현혹되어 도서관의 기본요소를 과감히 버린 것을 후회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사서들이 손때 묻은 카드목록함을 폐기하고 24시간 접근 가능한 전산목록을 가동함과 동시에 도서관의 저녁 운영 시간을 폐지한다면 이 그림에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⁵³⁾ 그리고 재삼 기억하자. 유니버설 워크스테이션은 가능하지 않음.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한국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가 '미래도서관 담론'이 펼쳐는 달콤한 꿈(dream)에 젖어들어가는 동안, 현단계 한국 도서관현장은 형극(荊棘)의 길을 걷다가 심한 경우 소멸(消滅)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 두드러진 사례가 최근의 '공공도서관 간판내리기' 사건들이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민중의 대학(people's college)'이 아닌 학생들의 독서실 정도로 기능해온 이 땅의 공공도서관은 97년부터 전문직 관장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게 되었다. 아니 그렇게 되리라고 우리 도서관인과 국민들은 믿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웬 날벼락인가. 그동안 도서관에 관한한 문외한인 행정직 관장들에 의해 우리의 공공도서관들이 좌지우지되고 농단(壟斷)되어 온 것도 가시밭길의 세월이었거늘, 이제 전국에서 행정직 관

52) 김정근, 앞의 글(1996), pp.11-12.

53) Clifford Stoll, 앞의 책, p.290.

장들과 관련 행정지원기관의 합작으로 때로는 물밑에서 때로는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공공도서관 간판내리기' 작전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제대로 한 번 해보기도 전에 우리의 공공도서관들이 여기저기에서 침몰해 가고 있다. 최근 전라북도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간판이 내려지고 대신 '청소년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문화예술사업소' 등의 이름이 올라갔으며,⁵⁴⁾ 제주도 서귀포에서는 시립도서관이란 이름은 사라지고 '종합문예진흥사업소'라는 명칭이 등장했다.⁵⁵⁾ 이러한 국면은 단순히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이 사실상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세계 공공도서관사에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고 있다. '미래도서관 담론'이 유니버설 위크스테이션에의 꿈을 피워올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도서관현장을 가꾸는 사서진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현 전국사서협회 회장의 말을 들어보고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자.

이제 우리 사서는 적자생존이라는 죽음의 선 위에서 서 있다.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는 마지막, 또 그 끝에 서 있다. 우리가 선택의 주체가 아니었던 상황에서, 인내하며 견디어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떠다밀고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 싸움은 어찌면 최초이며 마지막 육박

전이다. 이제 공공도서관 사서직관장 보임을 둘러싼 전투는 그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 싸움의 승자가 도서관을 지킬 것이다. 사서가 선택의 주체가 아니었던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인가? 비굴한 굴종의 시대를 다시 살 것인가?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이다.⁵⁶⁾

우리 도서관현장의 문제는 천근만근 무겁기만 한데, 기술맹신주의자들의 '미래도서관 담론'은 깃털처럼 가볍기만 하다. 한국 도서관현장의 사서진과 문헌정보학 연구자의 지지기반인 도서관이란 대지(大地)가 점차 침몰해 가고 있는데, 새털처럼 가벼운 '미래도서관 담론'은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있다. 이같은 '미래도서관 담론'은 한국 도서관현장의 기반(基盤)을 굳히는 데 이바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약하게 만들고 심지어 침식하고 있다고 말하면 과연일까? 한국 사회의 현실과 한국 도서관 발전의 현 단계가 굳건하지 못한데, 꿈같은 미래와 환상적인 도서관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가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좀처럼 가져보지 못했으므로 이제 도서관은 필요없다고 말할 것인가? 아! 참을 수 없는 '미래도서관 담론'의 가벼움이여!

54) 군산시청소년회관설치조례(1995.1.13, 조례 제137호), 정읍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직제규칙(1995. 1.14, 규칙 제67호), 익산시문화예술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1996.2, 익산시장 제출) 참조.

55) 전국사서협회, "제주시 서귀포 도서관 관련 자료", 전국사서협회소식, 제5권 5호(1996. 6), pp.9-10.

56) 김현철, "死線에서", 전국사서협회소식(전국사서협회), 제5권 5호(1996. 6), p.2.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내희. “영문학의 연구와 버터읽기”. 외국문학, 제12호(1987. 봄), pp.130-160.
- 곽주원. “‘노동의 종말’ 대(對) 도서관전산화의 종말”. 도서관운동(도서관운동연구회), 제2권 2호(1996. 6); pp.107-108.
-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편. 국립대학도서관보. 서울: 동 협의회, 1996.
- 김교만. “서울대도서관, ‘빈약’ 세계 99등”. 문화일보(1994. 9. 7), 1면.
- 김상현. “모르면 죽는다? ‘정보화 거품’ 지나치다”. 뉴스플러스(동아일보사), 통권 제33호(1996.5.9), pp.26-29.
-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울, 1995.
- _____. “주체접근법에 의한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모형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3집(1995. 12), pp.285-328.
- _____. “한국문헌정보학의 위상정립과 교수협의회 역할: 우리 학문의 실천성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회장 김태승) 1996년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기조연설(대전 유성, 1996. 6. 21).
- 김종엽. “환멸의 도서관”. 웃음의 해석학, 행복의 정치학 (서울: 한나래, 1994), pp.87-96.
- 유경환. “우리는 도서관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도서관, 제48권 5호(1993. 9.10), pp. 5-16.
- 이덕주. “누가 학교도서관을 죽이는가?”. 도서관운동(도서관운동연구회), 제2호(1996. 3), pp.19-26.
- 이수상. “미래도서관, 현실인가 환상인가: 우리 사서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전국사서협회소식, 제5권 4호(1996. 3), pp.4-14.
- 전국사서협회. 전국사서협회소식, 제5권 5호(1996. 6).
- 정운현. “미국의 공공도서관, 동네마다 하나씩 생활 속의 문화.정보기지”. WIN(중앙일보사), 1995. 9, pp.190-193.
- 정필모.오동근. 도서관문화사. 서울: 구미무역, 1991.
- 조왕근. “‘미래의 도서관’에 대한 우리의 환상: ‘디지털도서관’이 만능의 해결사는 아니다!”. 전국사서협회소식, 제5권 4호(1996. 3), pp.15-23.
- 조환규. “연필과 컴퓨터”. 녹색평론, 통권 제28호(1996. 5.6), pp.20-27.
- _____. “클리포드 스톨의 〈허풍떠는 인터넷〉”. 부대신문(부산대학교), 1996. 6. 10, 5면.
- _____. “인터넷과 기술의 남용: 무엇이 살아있는 교육인가”. 교수신문 (1996. 7. 1), 5면.
- “초고속 국가망 과실”. 국제신문 (1996. 7. 5), 1면.
- 최성진. “광복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5), pp.7-14.

2. 외국문헌

Crawford, Walt and Gorman, Michael. *Future Libraries :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and London : ALA, 1995.

Klemm, Friedrich. 기술의 역사. 이필렬 역. 서울 : 미래사, 1992.

Kyrillidou, Martha . Maxwell, Kimberly . Stubbs, Kendon, eds. *ARL STATISTICS*

1994-95. Washington, DC : ARL, 1996.

Negroponete, Nicholas. 디지털이다. 백옥인 역. 서울 : 박영률출판사, 1996.

Shera, Jesse H.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Littleton, Colo. : Libraries Unlimited, 1976.

Stoll, Clifford. 허풍떠는 인터넷. 한경훈 역. 서울 : 세종서적, 1996.

▶ 1996년도 한국도서관협회 신간안내 ◀

한국십진분류법(4판)/협회 편/크라운판, 1,522면/120,000원(도협회원에게는 96,000원)

정보사회와 공공도서관/오동근 역/신국판, 215면/7,500원(도협회원에게는 6,000원)

온라인정보탐색/노정순·유재옥 공저/신국판, 557면/16,000원(도협회원에게는 12,800원)

문헌정보학용어사전/사공 철 등편/4×6배판, 679면/50,000원(도협회원에게는 40,000원)